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 5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네 차례 키를 크게 돌렸습니다. 후쿠시마현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할 곳도 없으며 교회 네 곳은 아직도 출입 금지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현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손 꼽아 교회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교회는 도쿄도 아니고 다른 현도 아닌 교회이름 그대로 후쿠시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 그리운 우리들의 고향으로부터 한 걸음 앞까지 말을 옮겨 놓고

그 곳에서 잃어버린 고향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후쿠시마에 남아있던 성도들과 합류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를 40 년간이나 방황한 끝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긴 여정의 일막이 내렸습니다.

우리들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내 집과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땅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발이 묶여 때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고향을 앞에 둔 그 곳 어딘가에서 거처를 찾을 수 있을 지,

예배드릴 곳은 있을 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들은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현지 부동산은 상당히 혼란한 상황으로 아파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걱정스러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미 키를 돌리기로 결단한 이상 전력을 다하여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쿠시마현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아파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당분간은 밤 낮으로 부동산을 돌며 집 찾기에 몰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쿄와 후쿠시마를 빈번히 왕복해야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쁜 일정중에 움직여야 하기에 그다지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찾기라는 새로운 일을 주셔서 도전의 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민수기 9장 17~22 절

8月27日 샤프로에서

사토 아키라(佐藤 彰)